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음 1월 12일) 제19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 288-9700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 추진”

송 지사, 익산서 국가안전진단 현장행정 기간 4월까지 연장따라 전국체전 경기장 점검

송하진 도지사는 26일, 올해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경기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7면〉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4월 13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익산 공설운동장 등의 전국체전 경기장 현장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날 송지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경기장 내·외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장점검에 앞서 실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실·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대진단 추진을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연장은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기간이 촉박하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기간 연장으로 인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만큼 점검 실행, 점검결과 공개 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진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26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결의문을 외치고 있다.

K리그 클래식, 내달 1일 대서막

전북현대, 리그 2연패 대장정 돌입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울산현대와 개막경기 리그는 11월까지 열려

전주시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대가 리그 2연패를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현대와 4위 팀인 울산현대 간 '2018 K리그 클래식' 개막전 경기가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AFC 챔피언스리그 32강전 첫 경기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일궈내고 이어진 2차전 경기에서 6:0 완승을 거두며 패조의 출발을 보인 전북현대도 터스는 올해 'Culture of Jeonbuk(전북의 문화)'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전

북도민과 팬을 위한 전북만의 축구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동시에 K리그를 넘어 아시아를 선도하는 품격 높은 클럽을 목표로 삼고 멋진 축구경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18 K리그 클래식'은 3월부터 11월까지 팀당 38경기를 치르게 되며 전북현대 축구단은 홈에서 열리는 경기의 경우 불패를 목표로 구단과 선수단이 함께 뭉쳐 경기장을 찾는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각오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구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에게 전통 문화체험과 숙박 등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알리는데 최대한 홍보할 예정”이라며 “경기장 이동에 필요한 시내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관중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평창올림픽 감동 있다’ 내달 9일 패럴림픽 개막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감동을 이어갈 패럴림픽이 개막한다.

오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총 6개 종목에서 80개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50여 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회 사상 최초로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등 6개 전 종목 출전권을 획득해 39명의 선수가 대회 종합 10위를 노린다.

한국은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전주시, 올 중기 수출지원예산 3억원 편성 142곳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 등 판로개척 지원

독일형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시는 올해 총 3억 원의 수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총 14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지사 설립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다.

특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보다

다양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수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이 여러 세부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횟수도 기존 1회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수출과 자금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전담반도 운영할 예정,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 기업 애로해결 전담반을 통해 기업 현장의 걸림돌이 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전주시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역 기업을 작지만 세계에서 통하는 독일형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우리 지역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사진으로 다시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관련사진 16면

또 하나의 올림픽, 또 한번의 감동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Para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3.9-3.18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www.PyeongChang2018.com

- 장애인 알파인 스키 (Para Alpine Skiing)
- 장애인 바이애슬론 (Para Biathlon)
-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Para Cross-Country Skiing)
- 장애인 아이스 하키 (Para Ice Hockey)
- 장애인 스노보드 (Para Snowboard)
- 휠체어 컬링 (Wheelchair Curling)